

교회 회 표

신명린 예배
천국일본 강성
민족 복음화
세계 천국
아주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탄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주간 중현

2003년 10월 2차 정치가 혼란에 대하여(3)

“위엿 것을 생각허려”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셋째 날(10월 15일) 메시아 - 바울의 화심(행 9:1-22)

둘째 날(10월 16일) 메시아 - 옥중에서 부르는 찬미(행 16:25-26)

첫째 날(10월 17일) 메시아 - 관역과 같이 부음이 되고(딤후 4:6-8)

셋째 날 메시아 소개 - 관역과 같이 부음이 되고(딤후 4:6-8)

자신들에게 지나나 안 되고 그저 평안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저 평안하게 죽기를 소원한다. 물론 이런 소원은 나쁜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죽음을 얻어 두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그런 소원에 대하여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역과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딤후 4:6)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신을 벗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 제사가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 바울의 이런 소원에 비하여 우리의 소원은 얼마나 소극적이고 반박하여 이기적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만들어주셨다.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평안하게 죽기만을 바라나 얼마나 이기적이고 소극적인가! 이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심히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로 바칠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자. 선한 창치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한 속에서 영광스럽고 복되게 인생을 마쳤는지 배우도록 하자. 어떤 창치(천년 셋째 날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창치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결실을 맞게 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셋째 날에 선포된 구한 메시아를 놓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자. 내 백성이여 내 교회를 들으며 내 영의 일에 귀를 기울일지어이다(사 78)라는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9)라고 대답하며 주 앞에 함께 모이자.

[탈고 요요한 그림상 - 금요일회] 심자가의 소리

1부 예수 그리스도

5. 천국의 영광

놀라운 천국의 메시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이 심자가를 통하여 무너진 이후에는 온 열방에게서 그 메시아가 전파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지를 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심자가에 있어 참혹하게 죽으신 왕이셨고 온 세상의 구원이자이신 삼림장이었다는 사실이다(눅 11:30,32).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왕이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의 종 된 사람들, 어둠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심자가를 통하여 천국의 메시아지를 들려주시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눅 12:31-32, 롬 6:17-18).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의 메시아지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들인가?

이전에는 흉악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권세를 얻었다(고전 6:2-3). 이전에는 죄와 사탄의 법에 포획되어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자가 죽음의 통령을 통하여 죄와 사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롬 8:2, 5:10).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길을 걷게 되었다(롬 6:22, 8:14-15).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로 행했으나 이제는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그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골 1:6).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뿐이다(골 3:3). 이 땅에 살 수 있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하늘의 시민이라 부르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고전 15:50).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탄에서 생명의 은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이다(골 5:24).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변화들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이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천국의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고 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화려하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천국의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패배한 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아발로 모든 것을 정복한 승리자들이다. "무쌍한 자 같으나 유방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

고 정복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후 6:9-10).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축복이다. 이것이 주를 믿는 우리들의 영광이다.

이 세상의 영웅호걸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천국의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자랑한다. 우리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까닭은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거기 때문이다. 비록 천국의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지와 결별을 당하지만, 믿음의 주께는 신 왕에게는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 이들은 작은 무리요 찾기도 힘든 무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장차 그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서서 천국에서 어던양을 노래할 것이다(창 22:17, 계 7:9).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신들을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그의 기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대로는 더욱 선전하며 살 것이다(벧전 2:9).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 모든 일들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 천국 영광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의 왕좌에서 하늘 보좌를 떠나 천히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천국의 영광이다.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다.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이 영광을 논으로 직접 보게 될 때,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어디에서 가장 크게 말하려고 할까? 천국이 들어온 것처럼 천국이 화려하고 장엄한 천국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일까? 아니면 천국이 영광스러움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 영광을 상속하게 하고 천히 사마리 되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심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때문이다. 그러지 주께서 오는 그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를 찬송의 주제가 '여언양의 구원이 아닌 거' 이 일 후에 내가 보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온에 찬가라지를 들고 보좌와 어던양 앞에 서서 큰 노래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언에게 있도다 하라(계 7:9-10).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메시아지 함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 심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힘써서 걸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자.

"자! 누구인가!"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놀라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광명 앞에서 증거 할 열매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심오한 문제로 겉과 겉이 적인 일인가! 하지만 제자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성경을 펼쳐 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자.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자기 자신을 천히 인간(사 7:14) 부르셨다(마 1:1, 눅 19:10, 마 16:13).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울의 열서를 받으셨다(사 53:3). 주님은 죄인들 대신 심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물을 버리고 비천한 종의 형태로 오셨는데(대단한 25, 빌 2:7-8),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런 열서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외삼과 칭찬을 크게 책망하셨다(마 23:32). 그러자 사람들은 끝내 그런 예수님을 중용하여 심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얼마나 큰 배반이었는가!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 예수님은 니스대 성전 전체를 회개케 한 요보다 더 큰 분이셨고

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었다(눅 11:31-32).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분이었다(고후 7:4).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었다(고후 9:22). 또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용감하게 두 겹 손으로 잡고 온유하신 분이었다(행 13:41). 고난을 당할 때에도 참된 왕같이 온기를 잃지 않고 심자가에 죽기까지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이셨다(사 53:7, 롬 5:8).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마리라는 분이신가. 이 모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못하는 우리의 병통한 마음이 한없이 괴롭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일체로서 곧 하나님이셨다(요 1). 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마 28:18), 영원의 계속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다. 바울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다(1:7-8). 이전에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니 이제는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시니 바 되신 참 하나님이시다(대단한 13:6).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같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잠정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믿는가? 우리 인간의 광명도 화려하고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가? 혹시 겉으로만 알고 형식적으로 믿는 거짓 신자는 아니는가? 아. 성경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치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도록 열심히 연구하자

저! 나! 주! 사! 오! 예! 메! 사! 지

저! 누구인가? (8:25)

NOAH'S 100 YEARS JUDGMENT SERMON

"Now Noah was six hundred years old when the flood of water came upon the earth.

Then Noah and his sons and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ith him entered the ark because of the water of the flood. Of clean animals and animals that are not clean and birds and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ground, there went into the ark to Noah by twos, male and female, as God had commanded Noah. And it came about after the seven days, that the water of the flood came upon the earth. In the six hundredth year of Noah's life, in the second month, on the seventeenth day of the month, on the same day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urst open, and the floodgates of the sky were opened.

And the rain fell upon the earth for forty days and forty nights." (Genesis 7:6-12)

Noah was a man who took God's Word seriously. At the age of 500, he began constructing a huge vessel, an ark, commanded and designed by God as a place of safety from His upcoming judgment of a worldwide flood. This enormous project took him 100 years. At its completion, God purged the earth of the ungodly with water, leaving only Noah, his wife, his three sons and their wives, and the designated animals. For 100 years, Noah preached God's judgment sermon. He was "a preacher of righteousness" (2 Pet. 2:5). For 100 years, Noah practiced his faith. He "walked with God" (Gn. 6:9). For 100 years, Noah built the ark. He "did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Gn. 7:5).

During Noah's life, the earth was corrupt in the sight of God,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because of his faith (Gn. 6:8,11). God not only asked Noah to prepare the ark, but He also gave him the reason for its need, "Behold, I, even I am bringing the flood of water upon the earth, to destroy all flesh in which is the breath of life, from under heaven; everything that is on the earth shall perish" (Gn. 6:17). The ark became the meaning, purpose, and hope of Noah's life. All his efforts focused on this single task. His life wasn't about making money. His life wasn't about relaxing and enjoying his surroundings. His life was about doing God's will. His building the ark was a subjective sermon concerning God's judgment against sin, and His grace toward righteousness.

All the next-door neighbors, adjoining communities, and traveling visitors laughed, teased, and ridiculed Noah for 100 years. They thought he was crazy. Nevertheless, Noah continued, day after day, year after year, to preach God's sermon of judgment. His life centered on this one sermon God gave him. He and his family believed God's Word. Everyone they met had the opportunity to hear their preaching. The people not only could hear God's Word, they could see it in front of their eyes. The visible reality of the ark stood right before them. As time went by, they could even see the animals coming from all over, two by two, walking up the gateway door. Still, no one came to help with the work. No one believed the story of Noah's ark. As such, the blood of all who perished wasn't upon Noah's hands because he did God's work. For 100 years, he bravely preached and practiced real faith. The result was a saving ark made to God's specifications.

After 100 years of preaching just one sermon, only eight people were saved (Gn. 7:13). Even though the door was open for 100 years, and all the animals listened and entered, only eight people

entered the ark. Remember, during Noah's 100 years of ark building, the people also had Methuselah's great preaching. Upon his death, I'm sure Noah proclaimed God's coming judgment at his funeral. He told the people about his great grandfather Enoch, and how he walked with God and didn't die because God took him. He told the people about his grandfather Methuselah, a prophet of God, who finished his life preaching God's truth. He warned the people that now, with Methuselah gone, God's judgment would come soon. All were going to be punished, but there was a saving place, there was an opportunity to repent and be saved by faith in the ark.

My dear friends, the Bible tells us, "For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will be just like the days of Noah. For as in those days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the ark" (Mt. 24:37&38). Right now,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God's message to the world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Good News says that Jesus is coming again. He's now preparing a heavenly place for those with faith. The door is now open. Please enter this saving place. Please hear God's Word and listen to His voice. Don't carry on like the people of Noah's day.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for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t. 24:14). Please come now. God's final judgment comes at your death or Christ's second coming.

In Noah's day, there were only eight people that entered the ark. In Moses' day, there were only two people out of over two million people who crossed the Jordan River. In our day, I just wonder how many people will be saved when Jesus returns. The Bible clearly tells us,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b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are those who enter through it. For the gate is small and the way is narrow that leads to life, and there are few who find it" (Mt. 7:13&14). I hope you've found Jesus for He is the gate to heaven, He is the only way!

The end of human history draws near.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s, awaiting Christ's return. God's final judgment, purging the earth of all the ungodly with fire, is coming. True, no one knows the exact date or time, but all will be aware of its occurrence. Today, I preach to you God's judgment sermon. The reality of God's Word is true. The door to eternal life is now open, but it won't be forever. Enter while you can. Please take God's Word seriously, and accept His grace, and you, like Noah, will be saved. 🙏

다음주일설교

심판에 관한 노아의 백년간 설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육백 세되던 해이 월 곧 그 달 십 칠 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6~12).



김성관 목사

의의 설교자,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500세의 나이에 노아는 거대한 배, 곧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주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시고 설계해 주신 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완료하는 데는 1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백함을 받아 방주에 실렸던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주를 짓는 100년의 세월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벧후 2:5) 설교자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100년의 세월 동안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창 6:9).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행하였더라”(창 7:5).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알았기에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패역한 상태였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교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창 6:8,11).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주가 왜 필요한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창 6:17).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뒤부터 방주는 노아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가장 소중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즐거위가 편안히 쉬는 데 삶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는 데 철저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무시하고

노아의 모든 이웃들과 인접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은 100년 동안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으며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루 하루, 한 해 한 해 자신의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한 가지 설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방주를 짓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가 그들의 눈 앞에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 방주로 나아오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아를 도와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값에 대해서 노아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100년 동안 용기있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설교했고 참된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실천한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전한 메시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한 가지 설교를 100년 동안 줄기차게 선포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덟 명뿐이었습니다(창 7:13). 구원의 문은 100년 동안 활짝 열려 있었지만, 또 동물들조차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왔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직 여덟 명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100년에 걸쳐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이 땅에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므두셀라입니다. 므두셀라가 임종했을 때 노아는 그의 장례식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증조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 자신의 증조부 하나님의 선지자인 므두셀라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므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임박해 있음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창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구원의 방주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마 24:37,38).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여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마 24:14).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 오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노아 시대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출애굽 일세대에 종아 요단강을 건너 사람은 이백만여 명인 사람들 가운데 오직 두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적은 이가 적음이라”(마 7:13,14).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시작될 날짜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영원토록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이 열려 있을 동안에 그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노아처럼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0월 6일(월)~10월 15일(수)	G	17교구 8지역	김만중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0월 15일(수)~10월 24일(목)	K	8교구 5지역	박승길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25일(목)~10월 6일(월)	R	1교구 1지역	이보신
9월 25일(목)~10월 6일(월)	R	1교구 2지역	이승득
10월 3일(금)~10월 11일(토)	L	5교구 4지역	정태동
10월 3일(금)~10월 11일(토)	L	5교구 5지역	양승길
10월 3일(금)~10월 11일(토)	L	5교구 2지역	장석훈

*신교 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양은 밝히지 않습니다.

도코스테(맞습니다!)

권영일 (이란팀)

“맞습니다. 맞고요.” 대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 몇 개월 사이에 이란팀 성경공부를 하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이 수많은 교리상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자도 두지 않으셨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 신조로 삼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이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도 중의 하나이시며, 그리스도이며, 어느 남성의 개입이 없이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었고, 눈먼 자와 나병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을 믿는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슬림은 무슬림이라 불릴 수 없다고 말한다.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 그에 따른 성육신의 부정, 그리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기독교에서 확신하고 전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이 친구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흠뻑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할 때에도 친분 관계상 “그렇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나 그것은 이 친구들이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작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7월부터 출현교회 새가족주의 교제를 가지고 적은 수의 이란 친구들에게 집중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피곤하지만 조금씩 성경을 읽고 공경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며, 성경공부 중에 스스로 기도를 자청하기도 한다. 이란팀이 생긴 지 3년 반이 되었는데 그동안 세례 받은 사람은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듣고 참 진리를 깨달아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한 친구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한 이란 대사관에 찾아가는 때 교회에 가지말라는 협박과 함께 여권을 재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종교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이란팀 선생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남짓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이 자라나가는 한 친구가 있다. 그도 이슬람에서 어려서부터 잘못 배웠던 것이 바뀌고,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임을 되새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코스테! 맞습니다!’라고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고백하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더 나아가 이란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게 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일지 (2)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40년대에 지금으로 말

하면 미국 지역에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처음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어느 순간 광복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입지 헌신으로 기록했으며 중간 중간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지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처음에는 그의 선교 사역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인디언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시점이 바로 자신의 힘이 한계에 도달해 있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는 “그들에게 은혜로운 사역이 전파될 만한 희망은 거의 없었다. 당시 내 건강은 말이 아니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지루한 여행으로 몸이 많이 상했고, 인디언 사회에서 너무 고생한 탓으로 피로가 극도에 달해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갖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인디언의 영혼들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들의 지루한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었던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뉴저지의 크로스릭스에 있는 인디언들을 방문했다.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은 복음을 듣고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우상 숭배로 비참하게 자라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기들에게 일깨워 준 그 사람을 와서 보라고 전파하고 다녔기 시작했다. 드디어 울면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깨져서 버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고통을 하려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절망의 늪에 처할 지라도 믿은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짓고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영합성 기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②

성령의 인도와 이적

전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탁해야 하는 일이다(행 1:3). 그러나 많은 전도자들이 기대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서 드러난 성령의 역사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방언이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자 예루살렘에 우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기이하여 저 소동을 일으킨다. 현대의 많은 전도자들도 전도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방언을 비롯한 어떤 이적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방언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임하심의 근본 이유는 방언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내 증인이 되리라”(행 1:3).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다. 이적을 일으키라라고 하시지 않았다.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얼마나 명료한가? 실제로 베드로는 방언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오직 예수만을 말한다. “너희들은 저들처럼 복음을 할 수 있게 해 줄게”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설교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만(행 2:43), 그 기사와 표적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은 사람들(행 2:47)을 따라야 한다(행 2:47).

복음을 위하여 라는 빌립보 표적이나 이적을 요구한다면 그는 이미 성령에 의탁한 전도자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가지”라는 결론은 아주 위험하다. 이적과 복음을 연결시키려 한다면 이는 복음의 방법을 한정짓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자비함을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인됨으로 나타난다. 복음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주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성령을 입은 자이다. 성령 없이는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는 이적이 될 수도 우정이 될 수도 혹 그 감에의 만민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매개가 주어지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 성령을 만난 사람은 이적을 바라보지 않고 증인됨에 힘쓴다. 자신을 볼까, 우리 같은 죄인이 은혜를 입어 증인이 될까. 이같은 이적이 또 어디 있었는가?

(박진섭)

‘심자가’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히 받아왔던 심자가. 이 심자가는 누구냐 알고 있듯 죄인을 매는 행벌입니다. 이 죄인의 심자가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참 흠없고 사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정말 더러운 나를 위해 대신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마다 큰 감사와 함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따지도 사랑하셔서 들어가셔서 했냐. 그 창피하고 모욕과 고통을 이렇게 참았길 참으셨나. 이른 사람 앞에서 항상 무너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항상 참참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심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합니다.

참 측은 그릇이던 주님 주신 그 사랑만큼 나도 주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심자가는 다이상 치욕스럽고 아픈 심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심자가입니다. 이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 받는 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들어 익숙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런 진실로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사건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용기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인해 용인하신 어린양에 대해, 그 아름다운 기적에 대해서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심자가, 들어간 예수를 그냥 눈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고 내가 그 심자가를 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 심자가를 내가 지려 하니 실은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일에도 낙망하고 쓰러지는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심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를 정말 잘 아시고 세하신 부활하신 만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심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또 믿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심자가는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심자가입니다.

정내림(장학생)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면 법은 평화와 공평을 이루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전문의 내용은 우리가 배운 교과서와 수많은 책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각인되었다. 이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하기에 이 의식은 율법까지 적용되어 율법을 지키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율법을 떠올리게 되고 평화가 깨지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간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불문율이 생겨나고 회사 등 집단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규칙이 생겨며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제법 등이 생긴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싸우며 집안들은 여전히 험뜯고 나라들은 여전히 전쟁한다. 물론 그 중에 법을 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법을 어기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다.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었지만 실사 율법을 모두 지킨다고 해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인간이 범죄를 한 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깨뜨렸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한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미 인간은 죄성으로 물들었으며 사회구조 자체가 인간의 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쟁심과 시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를 높여려는 의지들이 현

선교, 영적 훈련소

류 기석 (대학부)

9박 10일간 네팔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다녀와서 거듭 느낀 것은 선교는 역시 영적 전쟁이며 믿음의 군사 된 우리에게선 또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번엔 내팔을 다녀와서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준비부터가 그렇다. 전투를 앞둔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에 필요한 갖가지 준비물을 한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총과 칼 대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장비를 한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면 우리는 노스맨 신앙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엔 전쟁터에 들어섰을 때이다. 전신 중 병사들은 군 사령관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진을 해야 할지, 후퇴를 해야 할지, 공격을 해야 할지, 방어를 해야 할지 오로지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우리들도 선교지에서 총 사령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동안 교만했던 나의 모습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이다. 이기든 지든 간에 군대는 전쟁을 치른 경험으로 부대를 보완하고 수정한다. 우리들 역시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영적 전투를 통해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교는 개인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로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영성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과 물 속에 직접 들어가 수영 배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쟁의 비유를 들어 선교를 설명하기는 했지만 세상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엄연히 다르다. 세상 전쟁은 이겨도 백해무익이다. 승자든 패자든 피로됨이 있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 가 보장된 전쟁일 뿐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전쟁인 것이다. 믿음의 군사. 얼마나 아름다운가. 난 다음에도 미련 없이 선교를 떠날 것이다. 사랑의 문턱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빛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할 것이다. 내게 배부셨던 것처럼.

거절하는 등불을 밝히며

정 국 용 (대학부)

저희는 지난 여름, 동유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카톨릭이 전체 인구의 50%이고 개신교는 1%도 안 되어 개신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언어실력으로 카톨릭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자 우리에게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거하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한 갈대, 꺾거하는 등불 같은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토마토 하나를 들고 오신 할아버지, 기도할 때 코까지 빨개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들. 우리는 그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심에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평화가 오나

재의 경제 체제와 사회 체제를 만들었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만약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율법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아무리 율법적인 방법을 강구한다 해도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절망하게 두지 않으셨다. 이미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구세주를 주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눅 19:38b). 이는 구세주가 오시기 이전에 계속 예언을 하신 바 된 것이지만(민 25:12,13). 이것 외에는 평화를 이룰 다른 길이 없음을 재차 삼차 확인시켰다. "왕평해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사 54:10b).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로 그 평화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

전쟁의 소석들로 인해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평화에 대한 그 관심은 인연, 인본으로 흐르며 그 해결책으로 법과 윤리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그 법과 윤리에 대항하는 것이란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숨겨져 거부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테면 전쟁터에 의료기구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면 부도덕한 사업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시각을 바로 잡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말씀 통해 보자. 오직 복음만이 평화라는 길이다.

(권요섭)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언제나 마지막처럼

김달수 (충원전도대)

페리 보드맨(Perry Boardman)



오래 전에 한 나라가 있어
부요와 번영을 누렸으니
그들 모두 뜻 모아 성벽을 세우며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네.
재물과 보화를 더 많이 쌓기 위하여
그들은 쉬지 않고 밤 홀리며 애썼으니
장래의 일에는 마음 쓰지 않았으니
임박한 멸망 아랑곳 하지 않은 것일세.
아, 그러던 어느 날
정성껏 쌓은 성벽의 돌들 하나 둘 무너지더니
모든 것 끝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네.
태산같이 쌓여왔던 금보화 모두 사라지고
왕관을 쓴 사람 하나 남지 않았네.
영원한 것만 같은 그 나라도 결국 멸망했네.
그 영광 온데간데 없고 그곳의 기름 사라졌으며
그들이 애써게 추구하던 것들 모두 물거품 되었으니
그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며 헛되이 수고한 것일세.
아,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운다 해도
주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그를 섬기지 않으면
오래 전 그 나라처럼 우리도 끝내 멸망하리라.



예전에는 영아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부 수술과 척추 수술 등 다섯 차례에 걸친 수술로 몸이 쇠약해져 아이들을 안아줄 수가 없어 교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그만 두었더니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봉사를 하지않고 지내서 중증 3부 교사로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봉사하는 교사의 권유로 전도훈련을 받았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병원 전도팀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40세 전후의 한 대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지만 뇌가 점점 없어지는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가 말상대도 하고 안마도 하곤 했는데 몸이 아파서인지 반응이 점점 느려지고 기뻐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주님 품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환자들을 보면 삶에 매달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아직도 제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는 몸 아픈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오늘은 쉬자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승리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주님께 영광 돌릴 때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환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실을 아무리 돌아도 주님을 감당하는 환자를 못 만나다가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만나 주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복음을 알고 싶어 하고 복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는 병원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작은 도움에도 감동합니다. 입원 옷이며 운동화, 심지어 파자에도 감동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들길 원하고 감당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신교나 전도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는 복음을 광범위 하지는 못했겠습니까. 선교를 통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알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교-복음전도'라는 공식보다는 '삶 전체-복음전도'라는 공식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선교 가사만이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이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가족전도의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남을 어떻게 전도하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 복음을 꾸준히 전하되 결과는 주님께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송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 곡은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Lelia Naylor Morris, 1862-1929)여사가 작곡했으며 나운영 교수가 편곡하였다. 10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녀는 가난한 살 속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30세 때 여름캠프 집회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다. 그 후 어느 날 그녀가 제 몸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상과 찬송시가 떠올랐다. 이렇게 해서 작곡하기 시작한 것이 1500편에 달했다.

그리고 작시자는 아이작 왓츠(Isaac Watts, 1674-1748)박사로 그의 부친은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 수차례 투옥되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고백했지만 14세 때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후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인간이 작한 찬송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예배 때 사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761편의 많은 찬송시를 썼다. 본 찬송시는 "거룩한 불굴의 정신(Holy Fortitude)"이란 제목으로 설교 후 4행시 6절을 작시하였다. 그리고 1724년에 펴낸 그의 설교집 제 3권에 덧붙였다.

- 1절: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로 주 이를 증거하기를 왜 주지하리요
다른 공로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 2절: 큰 싸움은 시작되여 용사를 부르든 곧 나가 전쟁 마땅대도 아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려 나가자 주님의 권는 참인대도 이길 때까지
 - 3절: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우려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은 나의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진자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 후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찬양위원회)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며 가슴과 팔뚝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라는 것이요 그 종이라는 철이요 그 발은 열이는 철이요 열이는 진흙이었다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식되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식되
어름 타작 마당의 거갈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단 2:32-35).

세·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31	고재영	1	장년1부		1240	이인숙	16	장년1부	박우현(4)
1232	윤형식	3	청년1부	박승길(8)	1241	장 준	19	청년2부	
1233	김효실	3	소망부	장수정(1)	1242	이해숙	19	청년2부	장선순(1)
1234	오지영	4	장년2부	이금숙(4)	1243	김소중	19	청년1부	권효복(17)
1235	유미선	4	장년2부	이금숙(4)	1244	서은영	19	청년1부	백영하(5)
1236	오형근	4	대학부	박선영(4)	1245	박지훈	19	대학부	김수현(19)
1237	홍경미	7	청년1부	김대식(1)	1246	전혜련	19	대학부	이원정(4)
1238	김용식	7	청년1부	김대식(1)	1247	이용진	19	대학부	
1239	양국석	14	청년2부						

※ 총신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계획해 놓으신 주님

황은정 (유아부교사)



처음 유아부 봉사 계의를 받았을 때 나의 대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였다. 봉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어서였을까? 내게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다.

부족하고 모자란 나인데 과연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잘 몰랐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정말 주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어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 곳에 왔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다. 이것은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다.

말이 없는 아이, 장난만 치는 아이, 엄마 품에서 떨어질 수 없는 아이 등 부족하고 미약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 아이 한 아이를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엄마 품에서 떨어질 수 없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혼자 내 옆에 앉으며 웃고, 장난만 치며 아이들을 괴롭히던 아이가 전도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성경학교와 친구초청잔치를 통해 아이들은 점점 성장해 갔다.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뿐 아니라 내 자신도 변화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겠지? 아직은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주의 사랑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재워질 것이다. 주님의 축복으로 아이들은 성장할 것이다. 내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아이들이 걸어 나아가길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도...

나를 계획해 놓으신 주님, 주가 주신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이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베드로 등의 믿음의 선조들을 만드신 것처럼 아이들 또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으며 당신의 사랑과 영예에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유치부 열매 9반 서요한 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부모 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럴 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고 생각하며 또한 나를 키우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이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지내면서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영적으로도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날 유치부를 다녀와서 "엄마,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요한이는 예수님을 첫 번째, 엄마는 두 번째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유치부 예배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지금은 다음주일 찬양곡을 준비하며,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학교 행사에도 잘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아직은 예배시간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키와 지혜와 자랄수록 믿음도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지기훈련 좌석배치도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제 3강 성경 연구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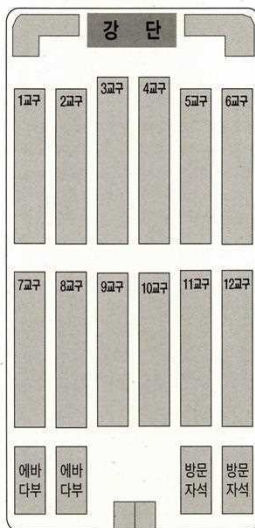
죄인들이 연구하는 주제는 인간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문의 최종 목표는 인간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발자취를 역사라 부르며, 그 안에서 질서를 찾고 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뒤돌아 서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얻은 지혜는 별거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무화와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려 보려는 노력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호흡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진자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역사(History)는 그의 이야기(His Story),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의 실제입니다.

성경 연구의 실체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고 과정의 나열과 수순의 개념 정립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논리의 구조 안에 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7-18). 성경 연구의 실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 14:7). 성경 연구의 실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요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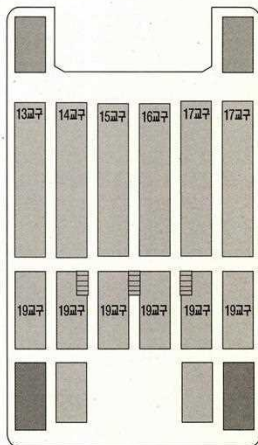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만포자와 사도과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딤후 1:11).

(황대원 기자)

1층 좌석 배치



2층 좌석 배치



교회 소식

알림

1. 정기지 훈안 작성해 보내도 안돼
정기지훈안 작성해 보내기 7번째
기회되었습니다.
2. 개회식 참석해주시고
제5차 학습세례식이 28일(주일)
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
교·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오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권사 2, 3회 월례회
월사: 22일(수) 수요일 9시 예배 후
장소: 강일리움
2. 안수집회(1회) 부부 친밀 연회
월사: 12일(오) 15:30
장소: 교육관 301호
3. 강일교회 월례회
월사: 12일(오) 15:30
장소: 본당 112호
4. 청년부 정기총회
월사: 19일(수) 12:00
장소: 제 2교육관 4층

발세

1. 장로회 성도 유혹은 감사의 시로,
10교구 10월 2일 밤세, 10월 4일
밤세
2. 강일교회 성도 강일교회 감사의 시로,
과장님 성도의 장인, 17교구 장
안수교구 10월 4일 밤세, 10월 6
일 밤세
3. 우동현 타교장로 박문선 감사의
장인, 우동현 감사의 시로, 17교
구 이매교구 10월 6일 밤세, 10
월 8일 밤세

결론

1. 김진민 교(강일교회 성도, 허준수
감사의 아들, 14교구)와 윤순영
(윤기원 세, 임정자 세의 딸) 10
월 16일(목) 17:30 서울대학교
텔 532-5000/0101
2. 이태원 교(이치로) 감사, 빈준수
감사의 아들, 14교구)와 황정식
원한수원 감사, 한순석 감사의
아들, 사방의교회/ 10월 17일(금)
14:00 강일리움

◆ 2003년도 하반기(3~10월) 정기 감사 실시

감사일시: 2003년 10월 중 대 상: 전 부세전도회 제의
준 비 물: 사신포, 금잔술잔부, 원정, 영수증
장 소: 감사위원회 제1교육관 302호

*개척교회(수원회, 이매성경교회) 감사 병행 실시

◆ 영아부 예배 안내

1부 예배: 9:00~10:00 2부 예배: 11:00~12:00 장 소: 교육관 110호
영아부는 0세~만 2세의 아기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신앙의 기초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만나보세요.

*그동안 모셨던 다른 지금 같이 기뻐하고 함께 하세요

2003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12일 (주일)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50	청년교도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김교신 목사)	교육관 309호		
10월 19일 (주일)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50	기독론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위건환 목사)	교육관 309호		
10월 26일 (주일)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50	기독교교례 (임원희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맹종원 목사)	교육관 309호	유아세례자 (안창학 목사)	교육관 301호
		문답	문답	문답	문답		
		청년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자비 전양애목,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강일리움)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운전직·경비직 2. 자택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지문 이미지·당회장추천서(타교단)·주민등록등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백성교회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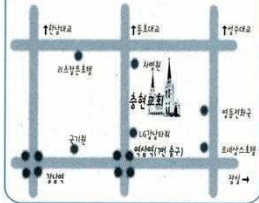
이번주 새벽기도회 답당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차신준	김정관/이강근	이종대/안상지	이종철/김수연	정현민/김종홍	김교성/홍순애	장 훈/김연식

예배 답당안내 (10/15~10/19)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10/15	수요 I		김영호	박광자	송리의 십자가(창 28:15) 교광환 목사
10/15	수요 II		서광진	이종석	바울의 회심(행 9:1-22) 김성관 목사
10/17	금요일예배	특별찬양 (대북부/연합찬양)	정현민	김성관	
10/19	주일 I		최헌광	김은호	성령에 대한 노아의 100년 전 설교(창 7:6-12) 김성관 목사
10/19	주일 II	합창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의 /소프라노 김송자(여인찬양대 솔로리스트)	서광진	이종석	성령에 대한 노아의 100년 전 설교(창 7:6-12) 안창학 목사
10/19	주일 III	나 행한 것으로 외/비바울인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이종석	성령에 대한 노아의 100년 전 설교(창 7:6-12) 김성관 목사
10/19	주일 IV	주 나행게 주시는 외/비바울인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이종석	성령에 대한 노아의 100년 전 설교(창 7:6-12) 안창학 목사
10/19	주일 V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외/불가 사용진(멜로디 오케스트라)	김종철	박광자	성령에 대한 노아의 100년 전 설교(창 7:6-12) 김성관 목사
10/19	주일찬양		장 훈	강대영	회심자 시(사 51:10-13) 이종대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성회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 오전 11:00 2.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예배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 간	차량
최종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일회	오후 10:30	본당 앞 주차장 교구원회 후 본당 앞 주차장

■ 위임목사 김성 관

■ 시무장소

김의철	김은호	노광진	오전국	이병학
신정호	김은호	노광진	오전국	이병학
이대원	이병철	강종우	이 훈	남선우
이대원	이병철	강종우	이 훈	남선우
정준호	김영길	조진태	김종우	최귀칠
김준호	김영길	조진태	김종우	최귀칠
김진태	이창호	차신준	김남관	이종석
김진태	이창호	차신준	김남관	이종석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귀칠	이종석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귀칠	이종석
전준호	전준호	이정우	김단우	황영일
전준호	전준호	이정우	김단우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관	김구형	최귀칠	이계인
안동현	황의관	김구형	최귀칠	이계인
이대성	김태두	박용규	권명옥	
이대성	김태두	박용규	권명옥	
조종환	배준식	이성호	박진원	
조종환	배준식	이성호	박진원	
최지환	노영환	박철규	정정길	신상수
최지환	노영환	박철규	정정길	신상수
강철형	고계호	김영은		
강철형	고계호	김영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서광진	박진원	여성기
이종대	정현민	서광진	박진원	여성기
유병태	이종철	김영준	여국근	김교성
유병태	이종철	김영준	여국근	김교성
안창학	박종원	나광영	정진호	김종덕
안창학	박종원	나광영	정진호	김종덕
고광환	위건환	김익환	김정수	장 훈
고광환	위건환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원희	이희식	최종철	최종철	안치원
임원희	이희식	최종철	최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준호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이태복	정준호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정규	이재영			
최정규	이재영			

■ 남전도사 이병호 (7:20)

■ 이매전도사

정현민 신동호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 남전도사 이병호 (7:20)

정현민 신동호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홍순애 이종우 김경자 안태준 김정연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ri Lanka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